

February 12, 2017

표적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35장(통50)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288장 (통204)

Prayer 기 도 이화정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요한복음4:46-54

Choir 성가대찬양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Sermon 말 씀 김원기 목사

" 예수님의 표적(2)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정기카운실/구역리더모임/새가족모임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하나님의 사랑 □ 본문: 롬8:31-39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 최영애권사

인도 : 성기현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옥련권사

인도 : 사라톨집사

□ 무 - 구역장 : 김봉재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새가족부

인도 : 김원기목사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1. 2017년 표어 "예수님처럼 말씀대로"(요15:10)

2. 이달에 읽을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3. 2017년 2월 행사 - 표적-

12일: 카운실, 구역리더모임, 새가족모임, 교육부연합예배 (배추)

19일: 구역예배, 새가족모임(4주차) (고구마)

26일: 교역자월례회, 생일축하(감자)

28일: CRC 코암노회 (청운교회 오전9시)

4. '성숙한 오후'가 교단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2월중 오후 1시30-2시30분간 진행됩니다.

5. 환우성도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이인순권사, 최금자권사, 김옥련권사, 김민준, 성기현장로)

6. 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문의:성기현장로)

7. 성가대 피아노반주자로 봉사자를 찾습니다.

8.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성경공부(7:30 pm) #매주 토요일 커피브레이크(6:00 am)

#토요새벽기도: 2월11일 성승록권사 18일 장정님권사

#2017년 성도의 삶 -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룹시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함시다.

- 말씀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함시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조홍진장로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황동근집사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전 도 사 : 황창원

□ 협동장로 : 이화정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1,320.00	자녀헌금 : \$ 20.00
주일헌금 : \$ 157.00	선교헌금 : \$ 130.00
감사헌금 : \$ 1,040.00	
EM헌금 : \$ 26.00	
지난주일 합계 : \$ 2,693.00	

예수님의 표적(1) 가나 혼인잔치 / 요한복음2:1-11

1절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잔치가 사흘째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과 배다니 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시다 고향근처 즉 나사렛지역에서 좀 북쪽인 갈릴리 가나에 오신 것입니다. 그 거리가 사흘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수고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가나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며칠 걸려서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정과 잘 아는 사람 꼭 참석해야하는 잔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하고 있습니까?

1.청함이 있어야 한다.(3,4)

마리아가 잔칫집을 위해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4절에 “-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갔지만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도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하니라”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 위기 때의 청함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아무에게나 청한다고 받아들여질 상황이 아니다. 우리들은 난처한 상황이나 위기 때에 우리들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고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포도주 구해 오라고 했다면 해결 될 것인가? 마리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았다.

2.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7)

6절에 보면 물을 담아야하는 항아리가 6개입니다. 당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아리를 미리 많이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잔치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하인이지만 힘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웁니다. 넘치도록 가득 채웁니다.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러한 수고와 성실함에 감동하십니다. 아귀까지 채우면서 일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일에 대한 자세, 태도입니다.

3.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합니다.(8)

연회장이라는 말은 “세계의 탁자”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잔치 집에 코너에 탁자를 준비해서 수, 음식 등등을 시중드는 부스를 모두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먼저 가져다가 떠주고 맛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해도 되죠! 내가 표적과 이적의 주인이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부으라고 시킨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먼저 맛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회장에게 먼저 맛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연회장이 감탄을 합니다.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잔치가 억망이 될 판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잔치는 더욱 즐거웠습니다. 난처할 뻔 했는데 신랑은 칭찬을 듣고, 칭송을 받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빛나기보다 상대를, 이웃을, 제자들을, 신랑을 빛나게 하십니다.

4.제자들이 믿게 됩니다.(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표적’ 세메이온 이라고 발음합니다. ‘예고’라는 의미입니다. 회상시대에 이 용어는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강하게 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갈릴리 가나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최소 사흘길을 걸어서 가나까지 오셔서 자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자기예고를 통해 확고한 믿음을 주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복음의 선교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천한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